

보도자료

제 목	“故 백남준 13주기” 추모 주간 행사 안내	
문 의	학예실 * 취재 문의: 강연섭 (t. 031-201-8559, m. 010-2906-1746)	
자 료	이메일에 기재된 링크로 다운로드	
배 포	2019. 1. 23.	쪽 수 총 7매

“故 백남준 13주기” 추모 주간 행사 안내



“백남준아트센터, 故 백남준 추모 13주기(2019.01.29.) 맞이해
 전시 연계 토크 및 워크숍 등 다양한 행사 마련”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서진석, 추모의 글... ‘故 백남준 13주기를 맞이하며’”

“故 백남준을 기억하는 특별한 온라인 추모 웹페이지
 <당신은 궁금하지 않은가?> 운영”

“개관 10주년 전시 《#예술 #공유지 #백남준》 전시 연계 토크 개최,
 ‘공유지로서의 예술’ 논의”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대중들이 모여 새로운 시각으로 작품과 전시를 읽어내는
 #관점실험 #교환 워크숍 진행”

故 백남준 13주기를 맞이하며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서진석

2008년에 건립된 백남준아트센터는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이라는 모토로 지금까지 백남준의 작업세계를 연구하며 그의 예술적 이상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백남준 선생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지 올해로 열세 번째 해가 되었습니다. 백남준아트센터는 백남준 선생님의 적자로서 그의 예술적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해는 없다. 다만 지금 못 풀뿐이다.” 19세기 기술혁명 시대에 한 서구 과학자의 희망어린 선언은 한 세기가 지난 후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우주의 중심이 아님을, 자연과 기술은 인간의 의지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음을, 우리는 이미 깨달았습니다. 자연 환경의 파괴, 기술 환경에 의한 인간성 상실 등, 21세기는 에코놀로지와 테크놀러지의 상보적 융합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한 시대입니다.

백남준 작가는 자연과 기술 간의 조화와 융합을 끊임없이 실천했고 이를 통해 우리가 나아갈 희망의 미래를 제시하였습니다. 그에게 인간, 기계, 자연은 상호보완의 생태적 유기체이며 하나의 가이아(Gaia)였습니다.

백남준 선생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예술적 이상을 다시금 소중히 여기며 그가 예시했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백남준아트센터는 더욱 더 노력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백남준의 물리적 유산은 더 이상 확장 되지는 않지만 그의 정신적 유산은 영원히 확장되며 우리의 미래와 함께할 것입니다. 백남준 선생님의 13번째 기일을 맞이하여 그를 기리며 추모합니다.

“백남준 추모 13주기” 관련 행사 소개

오는 2019년 1월 29일, 故 백남준의 13주기를 맞이하여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 백남준아트센터는 현재 진행 중인 개관 10주년 프로젝트 ‘예술 공유지, 백남준’과 연계하여 다양한 행사를 마련, 고인의 예술 세계를 추모하고자 한다. 이번 13주기 추모주간 행사는 온라인 추모 공간 운영, 전시 연계 토크, 교육과 퍼블릭 프로그램이 결합한 공유지 실험 워크숍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백남준아트센터는 온라인에 마련된 특별한 추모 공간 <당신은 궁금하지 않은가?>를 운영하여 故 백남준을 추모하고자 한다. 접속자들은 백남준에 대한 퀴즈를 풀게 되고, 주어진 문제를 모두 푼 사람은 ‘백남준을 기억하는 공간’에 추모의 글을 남기며 백남준에 대한 기억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

*백남준 추모 웹 사이트 <당신은 궁금하지 않은가?>(<http://curious-njp.com/>)

2019년 1월 24, 25일에는 각각 개관 10주년 전시 《#예술 #공유지 #백남준》의 참여 작가 안규철, 정재철의 라운드 토크가 진행된다. 작가들의 작업을 통해 ‘공유지로서의 예술’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비롯하여 디지털 시대 개인의 데이터 소유와 사용에 대한 문제, 예술과 사회, 자연 환경, 그리고 그것을 향유하고 논의하는 관객의 위치와 역할에 대하여 논의한다.

교육과 퍼블릭 프로그램이 결합된 공동체·공유지 실험 프로젝트 《#메타뮤지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는 ‘#관점실험 #교환 워크숍’을 진행한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대중들이 모여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는 본 워크숍은 <이야기 할머니>, <자연을 들여다보는 방법, 과학과 예술-식물을 과학으로 드러내고 예술로 표현하기>, <음악, 예술, 대중문화-예술 공유지로서의 K-POP> 으로 구성, 각각 2019년 1월 29, 30, 31일에 진행된다.

백남준아트센터는 관람객들에게 백남준과 그의 예술 세계를 알리고 함께 기억하고자 이번 행사들을 마련하였다. 또한 개관 10주년 프로젝트 ‘예술 공유지, 백남준’과 연계된 故 백남준의 13주기 추모주간 프로그램들을 통해 ‘공유지’로서의 백남준아트센터의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백남준이 오래 사는’ 방식을 다양하게 실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I. 故 백남준을 기억하는 특별한 공간, 온라인 웹 페이지 <당신은 궁금하지 않은가?>



백남준아트센터에서(관장 서진석)는 오는 1월 29일, 백남준의 추모 13주기를 맞이해 온라인상에 특별한 공간을 마련해 故 백남준을 추모하고 기억하고자 한다. <당신은 궁금하지 않은가?>는 백남준에 관한 퀴즈를 푸는 웹 앱으로, PC 또는 모바일로 누구나 접속이 가능하다. 접속자들은 미디어 아트의 개척자로서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작업을 해 온 故 백남준과 그의 예술 세계에 관한 문제를 풀고, 주어진 문제를 모두 푼 사람은 온라인에 마련된 특별한 추모공간인 '백남준을 기억하는 공간'에 추모의 글을 남기게 된다. 이로써 참여자들은 예술가 故 백남준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며 고인을 기리게 된다.

*백남준 추모 웹 사이트 <당신은 궁금하지 않은가?>(<http://curious-njp.com/>)

II. 《#예술 #공유지 #백남준》 전시 연계 라운드 토크

1) 라운드 토크 <참여의 딜레마>



-일시: 1월 24일(목) 오후 3시

-작가: 안규철

-패널: 김해주(아트선재센터 부관장), 이채영(백남준아트센터 학예팀장)

-장소: 백남준아트센터 2층 세미나실

세 번째 연계 프로그램인 ‘라운드 토크 <참여의 딜레마>’에서는 최근 지속적으로 관객으로 하여금 쓰고, 말하게 하고 그것을 기록하면서 작업을 구축해가고 있는 안규철(작가)의 작품세계를 통해 예술의 새로운 존재방식에 대하여 김해주(아트선재센터 부관장)와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2) 라운드 토크 <바다와 나>



-일시: 1월 25일(금) 오후 3시

-작가: 정재철

-패널: 김장언(독립 큐레이터), 김성은(삼성미술관 리움 책임연구원)

-장소: 백남준아트센터 2층 세미나실

마지막 연계 프로그램 ‘라운드 토크 <바다와 나>’는 오랜 시간 동안 현장을 바탕으로 진행해 온 해양 오염과 바다 쓰레기에 관한 정재철(작가)의 리서치와 참여적 작업을 주축으로, 시간과 장소의 기억을 되짚어본다. 나아가 환경문제에 대한 작가의 접근이 얼마만큼의 공감과 각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김장언(독립 큐레이터), 김성은(삼성미술관 리움 책임연구원)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Ⅲ. 《#메타뮤지엄 #프로젝트》 #관점실험 #교환 워크숍



- ▶ 동시대를 함께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시각과 이슈를 교차해보는 실험, 《#메타뮤지엄 #프로젝트》의 ‘#관점실험 #교환’ 워크숍 3중 진행
- ▶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대중들이 모여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는 #관점실험 #교환 워크숍
- ▶ 기존과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작품과 전시를 읽어내고 ‘공유지’로서 기능하는 미술관의 가능성을 제시

○ <이야기 할머니>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 할머니>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로 활동 중인 이경희 할머니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책 스토리텔링 형식의 옛이야기 구연이 진행된다. 백남준 작품에 등장하는 다양한 사물들이 ‘이야기 할머니’의 실감난 묘사와 흥미로운 손동작을 통해 따뜻한 정서가 묻어나는 이야기로 새롭게 해석된다. ‘이야기 할머니’가 펼치는 옛이야기를 따라 정서적 교감과 삶의 지혜가 공유되는 장소로서의 미술관을 경험해보길 바란다.

-일시 : 2019년 1월 29일(화) 1회차 11:00 / 2회차 11:30 (회당 20분, 총 2회차)

-대상 : 미취학 아동, 유치원 단체 (회당 15명)

-장소 : 백남준아트센터 전시장

-강사 : 이경희 (한국국학진흥원 실시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용인지역)

-참가비 : 무료

○ <자연을 들여다보는 방법, 과학과 예술-식물을 과학으로 드러내고 예술로 표현하기>



고등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본 워크숍은 생명다양성재단의 안선영 책임 연구원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자연과 식물'에 대한 강연과 토론으로 구성된다. 우리와 환경을 공유하고 일상을 함께하는 수많은 식물들. '식물은 왜 배경으로 인식되는가?'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자연과 공존하고 조우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본다. 첨단 과학, 기술, 미디어, 예술이 조합된 백남준의 작품처럼 '식물'을 과학, 예술과 융합해보며 자연을 이성적, 감성적인 방식으로 마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 일시 : 2019년 1월 30일(수) 오후 2:00-3:30 (90분)
- 대상 : 고등학생 및 성인 20명
- 장소 : 백남준아트센터
- 강사 : 안선영 (생명다양성재단 책임 연구원)
- 참가비 : 무료

○ <음악, 예술, 대중문화-예술 공유지로서의 K-POP>

'음악과 예술, 대중문화'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은 음악평론가 김작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백남준아트센터가 개관 10주년을 기념하며 세운 '예술 공유지'라는 모토를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확산되는 K-POP의 열풍 속에서 발견하고자 한다.

기획의도

K-POP은 더 이상 한국인이 한국에서 만들어 한국에서 소비하는 음악이 아니다. 한국의 아이돌 시스템을 바탕으로 다국적 멤버들로 그룹이 결성된다. 스웨덴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프로듀서들이 곡을 만든다.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등 다양한 국가에서 소비된다. 이렇게 형성된 K-POP의 흐름은 유튜브 및 SNS를 통해 역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소비되고, 다른 국가의 음악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세계 음악 시장의 '주변부'였던 한국의 대중음악이 어떻게 공유지로서 기능하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 일시 : 2019년 1월 31일(목) 오후 2:00-4:00 (120분)
- 대상 : 고등학생 및 성인 20명
- 장소 : 백남준아트센터
- 강사 : 김작가 (음악평론가)
- 참가비 : 무료